

취업 성공기



경영학부 4학년 학생

경상대 경영학과 전공의 남학생, 학점도 다른 학생들보다 좋지도 않고 토익점수도 만료되어 남들과 비교해 고득점 점수도 없던 저, 어디서 내밀기도 힘든 스펙을 가지고 주식회사 DSEC이라는 조선해양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 개척자로서 조선해양설계, 자재수출, 품질검사, 발전사업, 물류운송 등 각 개별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더 나아가 일관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된 종합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경기업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턴으로 먼저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기 도중 최종오퍼를 받은 주식회사 DSEC이라는 회사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는 뿌리 깊은 조선 역사를 지닌 유럽, 세계 경제의 거대한 축을 이루는 미주 등 세계 조선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들이 '최고 품질의 배'로 각광받고 있는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 기업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스펙이라고는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 일본에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여 일본어를 한다는 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영어로 짧은 회화를 하는 것 단지 그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욕심도 많고, 철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으로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 나중에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이것저것 벌리는 일도 많은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끝내놓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정신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리 저리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기 바빴던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대학생 때 아니면 못해보는 것만 다하는 학생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질리도록 CC도 해보고, 밤을 새며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보고, 해외도 나가보고, 학교 밖에서 열리는 공모전에도 참석해보고, 해외 인턴도 지원해서 다른 나라에서 일도 해보는 등 다른 학생들과고는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길은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력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학점과 기재도 하지 않은 토익점수를 뒤로 하고, 제가 가진 다른 전략과 나만의 강점, 해외 경험을 토대로 어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또한 어렸을 때의 해외 생활을 밑바탕으로 사교성을 점점 넓혀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 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을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 또한 일본인의 성향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만의 장점인 일본어를 얻었으며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된 큰 계기이자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에 우연히 기회가 생겨 오사카에 위치한 “미즈이조선”라는 일본의 3대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견학을 하게 되었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그 때 당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세계적인 기업에서 한국인이 인사부 마케팅 총괄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더욱 더 놀라웠던 사실은 몇 천억, 몇 조 이상의 배를 계약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사람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또한 유창한 일본어와 영어 실력으로 선주(선박의 법적인 소유자)와 토의 및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인상이 깊었으며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기회로 저의 대학진로는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경영학과로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전공 수업시간에 마케팅, 서비스마케팅, 국제경영 및 사례 경영정보시스템을 이수하면서 저에게 맞는 직무 관련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모국이 아닌 해외에 나아가 현지인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공통어(영어)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결정하고 1년간 떠나게 되었습니다. 1년 중 6개월 동안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공부하고 6개월 동안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저의 영어 능력은 향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온 뒤,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현지 시장분석 능력, 시장진입전략 방법 및 해외 고객 신용 및 정보를 숙지할 수 있게 근본적 틀을 배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지(외국)법 이해와 국외에서의 경쟁전략 방법 및 시장 환경을 잘 파악하고 숙지할 수 있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으며, 다양한 경험을 더욱 더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싱가포르에 위치한 항공사에 인턴의 기회가 생겨 다녀왔습니다. 외국회사인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약 4개월간 짧고 긴 경험

을 외국계 회사에서 보낸 저 또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남았고 뜻깊은 경험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 작성 및 미팅,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각 나라사람들의 개개인의 성향까지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 수업 시간의 대부분의 수업이 조 발표 및 개인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어 팀 워크 및 마케팅이 어떻게 해외기업에 반영 되었으며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마케팅 시간의 기업 대 기업이라는 발표 주제로 깨달은 4p전략과 7p전략을 습득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중심으로 활용해 왔다면 현재에는 사람과 서비스, 서비스와 상품이라는 중요한 요소로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의 뜻대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내 실패에 절대로 부정이 없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좌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도전을 두려워 한다면 절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어린 시절에 방문했던 조선소의 강한 여파로 인하여 지금에 제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고 정말 많은 좌절과 포기 및 새로운 도전 등 수 많은 방법과 고민에 1년 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동기들의 한 명 한 명의 취업 소식과 친척들 중 첫 월급을 타서 용돈을 드렸다는 말들 등 여러 가지로 압박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친구들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 하고 조금 더 독해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취업을 준비를 시작 하였습니다. 저는 전공 공부가 정말 재미있었고, 2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는 마케팅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겠다고 결심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 스펙 인플레 현상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의 활동내역을 보면 ‘취업은 높은 스펙이다’라는 말이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근래 대학가에서는 “스펙 쌓기”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부터 KT&G 상상프렌즈, 일본선도봉사, 중구 주민센터 일본어 강좌교사, “CJ 자연은맛있다” 공모전 수상, 사회인 야구단, 경영축구동아리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 활동 및 봉사를 해왔습니다. 저의 직무(품질관리)와 전공을 비춰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들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달리 제가 가진 건 단 하나 ‘진심

과 즐거움'에서 나오는 '패기'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경험을 해본다면, 그 속에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야기를 새롭게 창조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직무에 비춰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활동 중 사회인 야구단을 하면서 직무에 맞는 사교성 및 정교함을 어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을 만들면 어떤 활동이든 무엇을 경험하든 직무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좋아했던 일이라 진심이 묻어나오니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추진력이 생기고 도전 정신도 생겨 새로운 창의를 생겨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봉사활동처럼, 스펙을 위한 활동은 언젠가 지치게 됩니다. 짧고 굵은 줄 보다 가늘고 긴 줄이 더욱 오래 간다는 속담처럼 스펙 쌓기 또한 조급한 마음을 뒤로 하고 천천히 조금씩 진심으로 도전한다면 누구보다도 탄탄한 자기 자신만의 스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치 있는 위트는 호감도를 수직 상승시킬 수 있다’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색깔’을 잃을 수 있다며 깊이 있는 면접 준비는 조심하라며 당부하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면접 전 주에 취업스터디에서 모의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위기만 빠르게 파악하고 바로 실전으로 돌입하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잘 된 일이라 생각 되었고, 저만의 색깔을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어로 자기소개 및 질문을 자연스럽게 말 할 수 있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이후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 취업스터디를 계속 진행했었지만, 형식에 맞춰진 모의면접은 다른 취업준비생과 비슷해지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다 같은 형식에 맞춰서 비슷한 대답을 한다면, 제가 생각한 모든 면접관은 지루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습니다. 우선은 면접관에게 나만의 독특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점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머릿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의 정답은 바로 재치 있는 위트였습니다. 질문 중 ‘초능력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투명인간이 되고 싶

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왜?”라는 질문이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면접관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라며 재치 있는 위트를 던졌습니다. 방에 앉아 있던 모든 인사직원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나로 인하여 확 바뀌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적인 면에서 면접 질문은 비슷하다고 생각 되었고 분위기를 잘 캐치해야 면접 중에 긴장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준비해 온 색깔을 상대방에게 색칠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위트를 날렸다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더욱 더 긴장하고 무덤덤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잘 읽고 긴장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마인드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면접 시간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으며, 면접장을 나와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디섹은 이색면접으로 합숙면접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별활동과 인성,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조별활동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한 조에 8명씩 구성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인사 담당자 2명씩 한 조를 맡아 개개인을 체크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 당시, 너무 많은 긴장과 부담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절대로 조 분위기에서 이탈하지 말고 익숙해 저라’라고 인사담당관들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속한 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별활동을 다른 팀원들과 하게 되면, 자신이 튀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닙니다. 팀의 성과에 따라 회사조직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도 양보하면서 조원들과 협동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조원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기 때문에 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은 골을 많이 넣는 축구선수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의 메시라는 축구선수 역시 그렇습니다. 팀원을 위해 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에서의 능력 있는 직원들 역할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

다.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조직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회사에서는 개인별 성과 또한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회 조직 활동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고 팀워크를 발휘 했을 때 높은 성과를 가진 사람에게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 항상 조선/해양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핵심을 습득하였습니다. 지구의 2/3이 해양이라는 점과 종합첨단기술산업이라는 두 가지 특성은 이 분야만이 가지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글로벌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해양 산업은 넓은 바다로 진출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개기로 조선/해양인을 꿈꾸던 중 문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Leading Company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문득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관련 잡지, 학술지, 신문기사, 사설 등을 구독하고 조사하였지만, 기술/생산력에 있어 국내 외 유수의 조선업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만이 가진, 타 경쟁업체들과의 유별한 차이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와 환경’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영철학 중 회사의 핵심 성장 모멘텀은 구성원들의 애사심이고, 바로 그 애사심은 사내 분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위기, 본인의 업무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곳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모두에게 권하고 싶었고 향후 몇 십 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외국 선주, Vendor 등과의 협업을 통해 Global mild함양과 역량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채용공고를 보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협업사인 디섹에 지원하였습니다. ‘품질관리’라 하면 흔히들 말하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업무 관련 지식이 필요 없이, 무역 및 외국어 능력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과는 차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우조선해양 품질관리 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입사 전 조선/해양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직접 만나 업계의 현재 현황과 품질관리(QM)에서 필요한 역량 등을 직접 묻고 궁금한 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M(Quality Management)는 제품의 무결함 적기 인도를 위하여 생산부터 완성 및 배 인도 시까지 품질을 관리하며 고객만족을 극대화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전공정에 걸쳐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체의 품질관리는 각 공정별로 선체구조물이 설계 기준이나 선급 규정 및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되는지를 검사하고 보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공부한 QM(Quality Management, 품질경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의 최종적인 관리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QM팀의 주요 업무는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고, 전사 품질 전략 수립, 그리고 프로젝트별 철저한 계약 품질 이행관리를 통한 건조 중 품질에 대한 제반 업무입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 된다고 한다면 건조 중 수행되는 품질업무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조선·해양설비회사의 특성은 양산업이 아닌 주주업입니다. 휴대전화 및 자동차 제조와 같은 양산업은 특정고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만든 후 고객에게 판매하지만, 주주업은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제품을 주문받아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해양설비회사에는 고객들이 상주하면서 자신들이 주문한 제품이 제조 단계별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단계를 ‘공정검사’라 하며, QM은 고객과 함께 공정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또한, QM검사원의 중요업무 중 하나는 일련의 공정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와 고객 요구에 대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여 품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품질문제 및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설계/생산/연구소 등)와 함께 작업 방법/절차/시스템/환경을 개선/혁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QM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 스케줄링(survey)했던 검사항목을 확인한 뒤, 고객(선주)를 찾아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당일의 검사항목을 브리핑해주고 고객과 검사항목을 조율합니다. 검사업무는 보통 아침 8시 30분에서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검사업무는 주로 조선소 야드에서 이루어지고 검사항목에 따라 선체 블록(철판에 용접하여 만든 구조물로 여러 블록이 모여 선박의 형태를 갖추게 됨)의 용접과 도장(페인트)상태가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선박에 설치되는 각종 파이프, 장비(엔진, 발전

기 등)의 설치상태도 검사합니다. 규격/표준에 맞는 경우는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불량일 경우엔 생산팀에서 재작업 후에 재검사를 해야 하지만 다음 단계 검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오후 4시 정도에 공정검사 업무가 종료되면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날 실시한 검사항목을 정리하곤 합니다. 이때 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고객이 발행한 품질 불만족 사항을 확인해 생산에 수정요청 피드백을 해주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시할 검사항목을 스케줄링하여 검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QM으로 일하려면 특별히 ‘이 자격 이하는 안 된다’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QM에 부서배치를 받는 신입사원들의 전공만 살펴봐도 조선공학, 기계공학, 전기, 전기·전자공학, 화학 등 무척 다양합니다. 다만 저는 어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며 즐겨워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외국인이므로 영어를 잘한다면 최고로 적합한 QM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어는 매우 눈에 보일 만큼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QM의 업무 특성상 많은 고객 및 관련 부서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 성격은 쾌활하고 의사소통 및 활동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QM(품질검사)과 관련된 국제 자격증이 있다면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인증심사원(IRCA), 용접검사원(CWI, EN473), 도장검사원(FROSIO, NACE), 비파괴검사원(NDT Level III), 방폭(전기/전자 케이블 결선(CompEX)) 검사원 자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 품질경영팀에서는 약 300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인증심사원인 IRCA는 세계 최초의 경영시스템 심사원 등록기관으로서 최대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5개국에 만명이 넘는 심사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ISO9000 규격에 기반을 두고 품질경영 시스템의 실행 및 개선을 위해 조직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각 회사의 품질경영에 핵심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QM 업무의 매력은 진정한 글로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국적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고객들을 상대하여 국제적 감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는 국제자격을 취득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80% 이상이 외국인이다 보니 매일 만나서 서로 이야

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자동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으며 해외 기자재 업체의 현지 검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해외 출장의 기회도 다른 업종보다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박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인 만큼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정신이 만약 높다고 생각 된다면 Advice 해 주고 싶을 정도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반기 정규직 전환 인턴 채용에 먼저 취업을 했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에 먼저 최종합격이 되어 일본으로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굳게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기업으로 입사를 하는 것을 포기 한 채, 디섹이라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라는 디섹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계기의 한 가지는 루마니아 대우조선해양 파견이라는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환경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오직 의사소통이라고는 영어와 일본어였지만 문득 다시 돌이켜 보며 도전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서류, 2차 먼저 언급했던 이색면접(합숙면접) 3차 인사담당관 및 직원들과의 영어 면접, 마지막으로 최종면접에서는 임원들과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약 17.5대 1을 뚫고 들어오게 된 이 회사는 어렸을 적 꿈이었던 조선소에서 가장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의 경우 토익공부를 할 때 점수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많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가급적 장기간으로 영어 실력을 유지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조선용어 및 조선 환경요인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수많은 자료와 조선용어를 학습하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었고 면접을 진행 할 당시 많은 advantage와 나의 무기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 아직까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만기 전역해야 된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인사팀 사람들과 영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군필 주제 및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득 현재 생각을 다시 돌이킨다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떤 현명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간직하여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서만 좁은 전문가가 아닌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추으로써 회사에 보

템이 되는 “회사를 위한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인문학 전공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들과 팁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기죽이지 말자’ 둘째, ‘인문계열 전공자라고 취업을 한정짓지 말자’입니다.

인문학 전공자들이라고 무조건 서류에 영업관리직만 쓰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얼마든 경영지원, 인사, 품질관리,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직무를 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점은 웬만한 공모전이나 컴퓨터 자격증, 높은 스펙을 따지기 보다는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얼마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취업은 배짱이 있어야 하고 입사하기 전까지 자신이 ‘갑’의 입장이라는 배짱과 젊은 패기, 도전정신으로 취업에 맞서 싸우면 결과는 항상 YES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대학생만이 어려운 취업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